

녹색 삶, 녹색주부

박영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I.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의 뜻을 새삼 흥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활동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구환경운동의 표어와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그리고 주방의 구성원은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모든 생활인들이다. 주방 하면 앞치마를 두른 여성을 떠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의미에서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어둔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생활인은 환경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환경의 파수꾼도 바로 이들이라는 점이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전기 한 등, 물 한 컵을 아끼는 것, 쓰레기를 줄이는 것, 사무실에서 종이 한 장 아끼는 것, 사무기기를 아끼는 것, 생산현장에서 자원을 아껴서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쓰듯한다는 표현대로의 마냥 쓰고 마냥 버리는 편의추구의 생활양식은 아나바다운동(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일단 몸에 배인 습성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도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부담이 추가되기도 하는 녹색 삶은 강한 실천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비켜가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구환경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할 때에 가능해지는데 특히 지역단위 또는 다양한 생활권 단위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삼삼오오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된 세력은 여성주부들이다. 주부 중에서 전업주부(1986년도 통계 676만 3천 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학교의 어머니회, 교회·성당·사찰을 기반으로 한 여성조직체와 지역단위 여성단체들의 활동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에 환경단체들이 지구와 친해지는 생활방식의 실천프로그램으로서의 <에코가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각 사람의 환경의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어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녹색 삶이란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덜 훼손하고 모든 동식물과 공생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순환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녹색주부란 다른 아닌 녹색 삶을 사는 녹색가정을 꾸려나가는 주역인 주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의 수고 없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존은 불가능하다.

II. 우리의 생활양식은 변혁되어야 한다.

오늘의 물질만능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인 녹색 삶의 양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안이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에게 환경 재앙이라는 생명위협요인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20%의 세계인구, 80%의 세계자원소모)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뒤쫓아가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구자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12억 인구의 중국이 기존의 발전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을 하여 국민 1인당 소비수준이 미국의 로스엔젤스 빈민층의 소비수준에 이르려면 산술적으로 지구 만한 행성이 4~5개 더 필요하다) 우리들이 풍요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일이 었그제의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름의 가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활형편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회구하기에 이르렀다. (소득가설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 될 때부터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량적인 생활의 풍요함을 추구한 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품문제, 질병문제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오염시대를 살고 있다. 지구환경문제로서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과 호소의 피해, 열대림의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현상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너도나도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기오염(서울의 경우 대기오염의 80%의 원인이 자동차에 있다)을 탓하는 것을 비롯해서 오늘날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 받고 있는 프레온 가스 배출을 자기의 소비양식에 대한 반성 없이 제조하는 것만 비난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기업, 환경운동단체 등의 환경교육과 홍보부족의 탓이 첫째 문제된다. 아직 소비자에게는 생산자들의 금력에 의한 소비의욕촉구의 광고와 판촉활동을 억제할 만한 힘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녹색주부들의 손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있는 녹색구매지침서 하나 쥐어져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매일의 생활이 프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있다. 프레온가스가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은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는 자동차의 연료로서의 직접적인 사용 이외의 간접적인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비누를 비롯한 일상용품들, 의류, 포장재, 농자재, 건축자재, 공업용자재 등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프레온은 바로 석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나트륨 생산의 부산물인 염소의 처리물이다. 폐기물을 활용해야 하는 데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프레온가스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냉방기의 냉매체로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의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이 것이 개발된 당시의 분위기는 개발자로 하여금 노벨상의 후보라고 칭송할 정도였다. 그러나 프레온이 개발되어 실용화된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프레온은 오존층을 파괴해서 인류에게 피부암을 일으키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 받기에 이른 것이다.

60년대 말의 세계의 석학들로 구성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지금부터 50년 내)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물 그리고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며 경고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물 전쟁과 식량 전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가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세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지구시민은 녹색 삶인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녹색주부는 녹색 삶을 주도에 나가야 한다.

Ⅲ. 녹색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녹색 삶을 솔선 수범해야 하며 피해자로서는 이웃과 정부와 기업을 지켜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 생태환경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과정에 투입되면서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 증가 문제와 도시화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등이 생태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른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는 몇 가지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릇된 인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① 인간들이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것이다. 최근까지 인간들은 (특히 선 국민이라고 하는 서구인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연을 개발대상으로 여긴 결과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훼손하게 되어 현재 생태계의 보복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때로 아직 30년이 ³¹⁷않았다. 그 때 인간이 깨달은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려지리 만큼 큰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이들과 공생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수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곤충이 살 수 있을 때 인간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② 만물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가 마치 현세대인 만의 것인 양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다”는 케냐의 격언에서 나온 말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오늘의 지구의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미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원칙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것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데에서도 지구는 자손 대대의 자산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세대의 자연자원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강탈해 쓰는 것이며 후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하다.

③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수억 만년이 걸려서 형성된 자연자원을 백여년간에 다 써버리는 소비구조에서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화석연료의 사용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1959~1968년 사이 9년간의 미국인이 사용한 화석연료는 화석연료 사용의 역사 이래 전 인류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인류존속의 위협은 자원남용으로 인한 자원고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원고갈에 앞서 인간이 쓰고 버리는 폐기물에 의해 재촉되리라는 뒤늦은 경고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문제, 폐수문제, 오물처리문제 등으로 이미 우리는 몸살을 겪고 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지 않다.

④문제해결을 기술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기술개발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술낙관론에 입각한 대처방안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앞서 지적한 프레온가스에서와 같이 기술개발의 한계와 역기능에 대한 계산이 빠져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학자 자신들도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에 유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도 없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자백하고 있는 마당이다. 오늘의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사후방책이 아닌 사전예방에서 그리고 공급관리원칙에서 수요관리원칙으로 전환하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녹색시민과 녹색주부들의 개개인의 생활과 행동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녹색 삶이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녹색 삶이란 지구를 황폐시켜서 현세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후손의 세대에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녹색주부들의 삶의 지혜로서 계속 개발되어 전파되어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한다. 에너지절약, 물질약 및 재사용,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활용, 적정량의 물질 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녹색소비생활은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시작된다. 구입하는 물건의 만들어진 과정,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을 따져보며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 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한다. 식품인 경우에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어서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녹색주부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을 겸하고 있는 자원 재사용을 위한 수천 개의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와 중소도시에서 성업중이다. 그곳 사람들의 중고품 사용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상점들이 모두 자원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은 그 나라의 국민의 공익을 위하는 인식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서 모범이 된다.

다른 나라의 녹색주부들은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유하고 있다. 물건의 최종 폐기는 우리 녹색주부들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해서 재자원화 하고 있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질이나 외양에 상관없이 재생제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녹색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외국에는 이미 그런 생활정보를 담고 있는 많은 출판물 또는 홍보물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 있어 녹색주부들을 포함한 모

든 사람들의 생활지침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 녹색주부들의 녹색 삶을 위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의 주부조직이나 환경운동체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녹색주부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선다. 쾌적한 지역 만들기의 시작은 내 집 앞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국가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그 나라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모든 가정이 자기 집 주변을 녹화와 미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집 울타리 밖에는 아무런 관심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6. 27 지방자치선거 이후 각 지역의 환경은 그 지역의 정부와 주민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환경행정은 다른 행정과는 달리 생활인 모두의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행정이다. 오늘의 우리의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는 주민이 바라고 있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규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 현재 자치체들에 따라서는 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기도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일에 아닌 경우라면 주민들이 정부의 문을 두드리기라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녹색주부의 할 일이다.

다른 나라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녹색시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내 고장 만들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들이 우선 착수하는 것은 자기 고장의 환경지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환경지도를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고장의 환경현황을 파악하며 지역주민간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도 굳혀가고 애향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공해배출업소나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망, 보안시설,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휴식공간, 학교주변환경, 하천의 상태 또는 그 고장의 특수동식물파악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작업을 비롯 살기 좋은 내고장만들기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 작성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의제 21 (Agenda 21)의 제 28장에는 세계의 도시들을 녹색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각 도시들은 자기 지역의 <지방의제 21>을 제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도록 (1996년 말) 되어있는데 이 과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기업이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쾌적한 지역 만들기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제 21> 작성을 통해 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가 된다.

③ 내 고장만이 아닌 광역환경, 국가환경, 지구환경에도 관심을 가진다. 환경문제는 지역경계, 국가경계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문제, 하천수질문제, 산성우문제, 녹지대보전문제, 쓰레기처리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지구환경문제와 광역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과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익집단들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이다. 최근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을 비롯한 여타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기서의 주된 논쟁은 소위 말하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이다. 합리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유치주변의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기는 무리이다. 그렇다고 시설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녹색주민이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원인자부담원칙, 수혜

자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무임승차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 실비부담으로 피해자는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시행되는 등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체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

④정부(중앙 및 지방)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현재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환경분야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린라운드를 비롯한 OECD 가입국으로서의 대비를 위해서도 환경문제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환경의식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연초에 환경부가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비전 21>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어서 3월 21일에는 대통령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환경복지구상>을 공개하고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의 장미빛 구상이 연발되는 가운데 심각한 환경파괴현상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문제가 입증되고 있다.

서울의 대기오염상태는 베이징, 멕시코 및 카이로와 함께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기구가 보고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96년 5월중의 서울의 대기는 반 이상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오존경보가 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6월에 들어서면서 내리기 시작한 빗물에 섞여 방류한 산업폐수에 의해 한탄강과 임진강에는 수십만 마리의 폐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떠올랐다. 이로 인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나서서 환경사범에 대해 사형에 이르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호언한바 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국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의 유해폐수를 수 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을 무단 방류해 공기업이 해양오염을 서슴지 않은 민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녹색시민들의 정부감시는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행정의 행태는 또한 어떤가. 낙동강의 폐놀 사건 등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건이 터지면 그 수습에 법석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환경관련법들이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녹색주부들은 잘 감시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보다 복잡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의 감시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고장의 환경정책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의 환경행정요원보다도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있게 마련이어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⑤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켜보아야 한다. 낙동강의 폐놀사건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의 녹색이미지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띄고 있지만 내실 있는 녹색경영인가 하는 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최근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양 이름이 붙여지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과 기업이 그들의 광고내용과 같이 명실공히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환경마크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생산자가 신청한 상품이 소정의 규정에 부합되면 환경마크를 부여받고 있는데 아직 연륜이 짧아서 품목과 품종이 다양하지 못해서 녹색주부들이 일상생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가능한 것은 녹색주부들이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평가되는 것들을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고작이다.

기업의 경영방향전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이다. 오늘의 현실은 환경마크표시제품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추가경비를 투입해가며 녹색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의 산물이다.

소비자는 기업이 녹색상품을 생산해주어야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가 구매해주어야 생산하게 된다는 원칙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감독이 제대로 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녹색주부는 정부와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

IV. <에코가족운동>에 참여하자.

에코가족운동은 가정단위에서 개개인의 생활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생활운동이다. 에코가족운동은 도시화 과정에서 해체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고 살맛 나는 내고장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웃과 함께 도모하는 환경운동이다. 에코가족운동은 궁극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실천운동이다. (유엔환경기구-UNEP 지원사업)

우리 나라 환경관련 갤럽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서 일반국민 88.3% 그리고 여론주도층의 92.1%가 환경문제를 들고 있으며 일반국민 88.5%와 여론주도층 94.8%가 경제성장을 늦추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환경청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91% 이상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0% 이상은 환경오염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로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사가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①거의 대다수 국민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환경문제의 원인이 인간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②그러한 국민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개개인이 처신하여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③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은 단지 TV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얻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국민의 환경의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계속 악화추세에 있다. 그것은 환경의식과 생활실천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달리 말하면 실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교육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가족운동은 비교적 쉽게 환경의식을 생활실천으로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와 문제의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 권장하고 싶다.

에코가족운동의 진행방법은 ①혼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위한 생활실천을 소집단활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우선 이웃, 직장, 학교, 취미모임, 또는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5명~8명의 팀을 구성한다. ②각 에코가족 팀은 에코가족운동의 지침서를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 02-325-5525, 경실련 02-765-6920, 한국사회교육원 02-744-3964)로부터 배부 받는다. ③에코가족은 지침서를 읽어가면서 매 항목마다 각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팀 안에서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을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④이 프로그램의 전체진행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달-쓰레기줄이기, 둘째달-물 아껴쓰기, 셋째달-에너지절약하기, 넷째달-자가용 덜타기, 다섯째달-자원절약하기, 여섯째달-종합평가하기로 되어있다.

이 운동은 매달 과제를 4주로 구분해서 첫째 주에는 실천일지의 실천항목에 따라 각 가정의 실천전의 상황을 가족과 상의하여 기록한다. 둘째 주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표를 작성

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갖춘 후에 행동에 들어간다. 셋째 주에는 그 동안에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새로운 경험들을 팀원간에 교환하며 상호간에 격려한다. 넷째 주에는 실천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천일지에 실천 후의 결과를 기록하여 팀장에게 제출한다.

실천일지는 주제마다의 실천항목이 10개 내외로 되어있으며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의 경우 우리 집 재활용터 만들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1회용 음식 포장재 줄이기, 종이 양면 쓰기, 불필요한 광고물 거부하기, 음식물쓰레기 퇴비 만들기, 형겅손수건 쓰기, 수선해서 오래 쓰기, 쓰지 않는 물건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등으로 되어있다. 가족들은 실천내용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해서 일지기록을 완성한다.

에코가족운동은 녹색 삶의 실천방법을 연구하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반드시 정해진 지침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독창적으로 팀원들이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

에코가족운동은 지구를 위한 세계실천행동계획(GAP- A program of Global Action Plan for the Earth)으로서 6개월간의 이 운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지구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6개 국가의 수많은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녹색주부로서의 녹색 삶이 에코가족운동을 통해서 시작되고 내실을 다져나갈 때 우리 나라의 환경운동이 제대로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V. 자녀들의 환경교육을 관심하자

최근에 특별히 우리청소년들과 관련된 반윤리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사회 문제화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타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환경이나 가정교육부재를 문제삼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과거에 비해 인내심도 약하다고들 한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물론 그 격심한 경쟁을 뚫기 위한 과보호적인 가정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든 원인이라고 본다.

오늘의 우리 자녀들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학용품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하고싶은 것에 대한 절제를 배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만큼 부모들은 미리 대령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학생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정경제가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보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첫 학습장이 어머니의 무릎이며 첫 교사가 어머니인 것과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은 가정에서 어머니(녹색주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어서 소비를 절제해야 하며 자연의 순환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생활양식을 배우게 해야한다.

잘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양에서 찾던 것을 앞으로는 비물질적인 질에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주창되었던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은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으나 무엇으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만에 하나 그 내용이 경제제일국가 또는 생활수준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발상이다. 환경운동가들의 여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환경의식은 어느 사회집단에서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나 행동양식에서는 가장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에 의하면 환경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교육대상은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자신만이 아닌 주변어른들의 환경실천에도 감시자의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생명과 직결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녀교육의 문제는 녹색주부(어머니)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VI. 맺는 말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해 온 국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필두로 장바구니 사용운동, 무공해 먹거리 직거래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자원을 아끼는 일이다. 덜 쓰고 덜 버려야 한다. 유독한 것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사회를 쓰고 버리는 소모형 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전환은 가치관의 대변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녹색주부의 녹색 삶 운동은 개인생활을 자숙하는데서 한발자욱 나아가 힘을 모아서 사회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앞서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고 했다.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녹색주부들에 의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